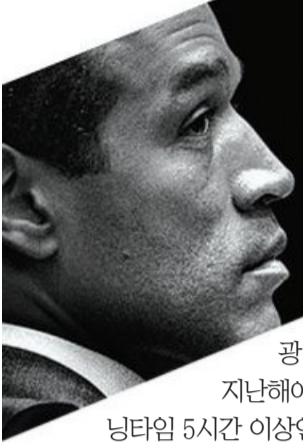


'시티홀'  
'바퀴 The Wheel'  
'O.J. :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일과 나날'  
'라플로르'

# ONEDAY CINEMA

시즌2, 광주극장



## 13시간 상영

## 반드시 끝까지 볼 것



'시티홀'

감독이 공동으로 연출한 작품으로 러닝타임은 480분이다. 인구 47명의 사골마을인 일본 교토 현 시오타니 계곡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는 이곳에 사는 시오지리 다요코가 농사를 짓는 과정을 그린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화면에 별레나 바람 소리만 들리는가 하면 카세 료 같은 스타 배우가 등장하는데도 극적 장치는 없다. 영화는 관객이 온전히 그곳의 생활을 체험하도록 유도한다.

기획전 마지막 작품은 '라플로르' (2018)다. 마리아노 이나스 감독이 10년에 걸쳐 만든 역작으로, 무려 1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섯 개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각각의 이야기는 로맨스, 미스터리, 스파이 스릴러, 또는 실형 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옮겨가며 네 명의 여배우가 서사의 중심에 등장한다.

관람료 일반 1만5000원, 후원회원 1만원, 청소년·실버 1만2000원. 문의 062-224-5858. /전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소설가이자 언론학자 김민환 이병주국제문학상 대상



소설가이자 원로 언론학자인 김민환(사진) 고려대 명예교수가 제14회 이병주국제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상금 1000만원.

이병주기념사업회는 17일 올해 이병주국제문학상 대상에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병주국제문학상은 '지리산', '산하', '관부연락선'의 작가 나립 이병주(1921~1992)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국제문학상 대상은 매년 기 발표된 여러 나라 문학작품 중 역사성과 이야기성을 갖춘 작가 또는 문학사적 의미를 보유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대상을 수상한 김민환 소설가는 올해 장편 소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 (문예중앙)를 펴낸 바 있다. 실존 인물인 봉강 정해룡(1913~1969)의 생애와 아울러 그와 연결된 보성 일대 유지를, 군민들의 궤적을 추적하는 작품이다. 김 작가는 수상 소식이 "이병주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에 이 같은 상을 받게 돼 기쁘다. 문인이나 문학 평론가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선정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상을 계기로 꾸준히 창작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이주혜 플루트 독주회

23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플루트 선율로 만나는 생상스와 피아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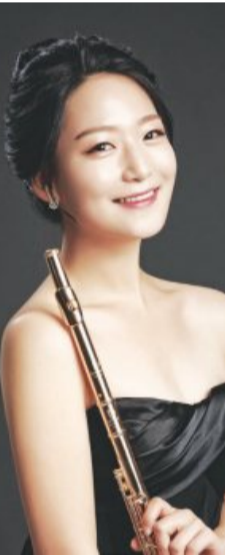
'이주혜<사진> 플루트 독주회'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티엔티예술기획이 주최하고,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음악회에서 이주혜는 플루트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생상스 서거 100주년과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두 작곡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슈만과 슈베르트 작품을 함께 들려준다. 1부에서는 슈만의 '3개의 로망스'로 시작해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그리고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를 선보이며 2부에서는 생상스의 '로망스 작품번호 37'과 슈베르트의 '시든 꽃 주제에 의한 서주와 변주곡'을 선사한다.

호남예술계 출신인 이주혜는 광주예고를 거쳐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뉴욕 메네스 음대에서 석사학, 뉴저지 럿거스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플루트앙상블,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필하모닉과 협연을 비롯해 광주시향,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부수석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예고에 출강하고 있다.

전석 초대. 문의 010-6331-6834. /전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아! 김대중'

서거 12주기 추도식·음악회... 오늘 김대중컨벤션센터

### 전시회·학술행사 성료

올해로 서거 12주기를 맞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인권·평화의 철학을 계승하기 위한 추모 행사가 추도식과 음악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김 전대통령의 삶과 역사를 기념하고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전시·영상·음악회 등 김대중 정신 계승 사업을 펼치고 있는 김대중 추모사업회가 주관한 올해 행사는 전시회, 학술대회, 공연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18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이번 추도식과 음악회는 '아! 김대중-사람을 하늘처럼, 세계를 한집처럼(事人如天 萬邦一家)'을 주제로 열린다. 공연에서는 오페라를 비롯해 한국가곡, 민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첫 곡은 바이올린(박승원), 플루트(김설하)

은), 첼로(오지희), 클라리넷(이은영)이 어우러진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이다. 이어 소프라노 김선희·임현진, 테너 김백호, 바리톤 김철웅 등이 '동심초', '고향', '신아리랑', '청산에 살리라',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등을 들려준다. 또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My Way' 등도 준비했다.

광주시립합창단은 부지휘자 이준의 지휘로 '백학', '그리운 마음',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선보이며, 가수 정용주·유익남·최고은은 '심장에 남는 사람', '사노라면', '목포의 눈물', '춘풍',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도 들려준다.



소프라노 김선희



광주시립합창단

공연 전에 열리는 추도식에서는 정영일(김대중광주추모사업회 이사·동강대 교수)이 김대중 대통령 연보를 발표하며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집 광주시의회회장의 추도사, 림추선·이윤정(김대중대통령서거12주기 행사위원장)의 추모 메시지가 이어진다.

한편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에서 열렸던 추모 전시에는 서재가 고

(故) 이돈홍, 전명옥 작가와 서양화가 서기문·조현수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전시했다.

또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김대중평화주간 선포식에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김대중의 국익외교'를 김봉국 전남대 교수가 '청년 김대중'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민중가수 최고은의 공연도 펼쳐졌다. /김미은 기자 mekim@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